

## 국내경기는 2개월 만에 개선

~ 백신 접종 보급 등으로 개인소비 관련도 상향 ~

(조사대상 2만 3,737사, 유효회답 1만 1,109사, 회답율 46.8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### 조사결과 포인트

- 2021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1.6포인트 증가한 39.1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해외경제 회복과 함께 개인소비 관련도 상향하여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 향후는 감염자수 동향이 우려요소이나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.
- 전 10개 업계가 개선되었다. 9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에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가운데 백신접종 보급도 진행되어 『서비스』 『소매』 등의 개인소비와 관련된 체감경기가 상향하였다. 또한 미중(美中)으로의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 등의 수출이 증가경향인 가운데 『제조』 『도매』 도 개선되었다.
- 『키타칸토』 『호쿠리쿠』 『킨키』 등 3개월 만에 10개 지역 모두가 개선되었다. 긴급사태선언이 「오кина와」를 제외한 9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에서 해제되어 44개 도부현(都道府県)이 개선되었다. 특히 주요산업이 IT관련 및 수출용 기계제조인 지역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. 「대기업」 「중소기업」 「소규모기업」이 3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.

### < 2021년 6월의 동향 : 다시 상향 >

2021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1.6포인트 증가한 39.1로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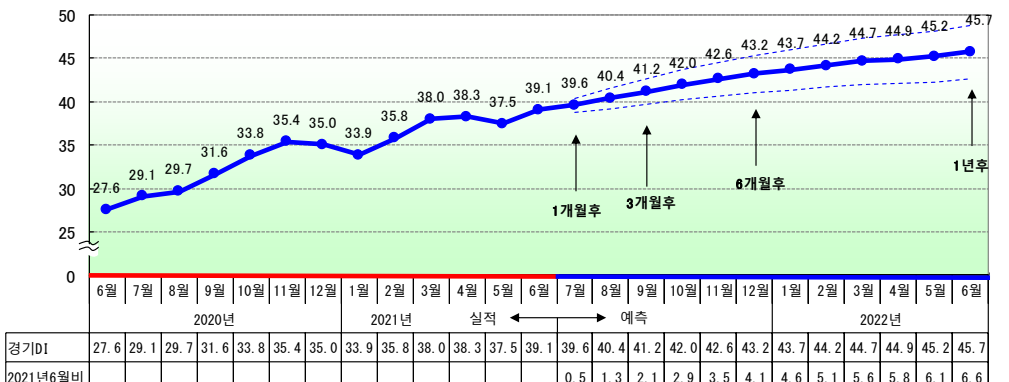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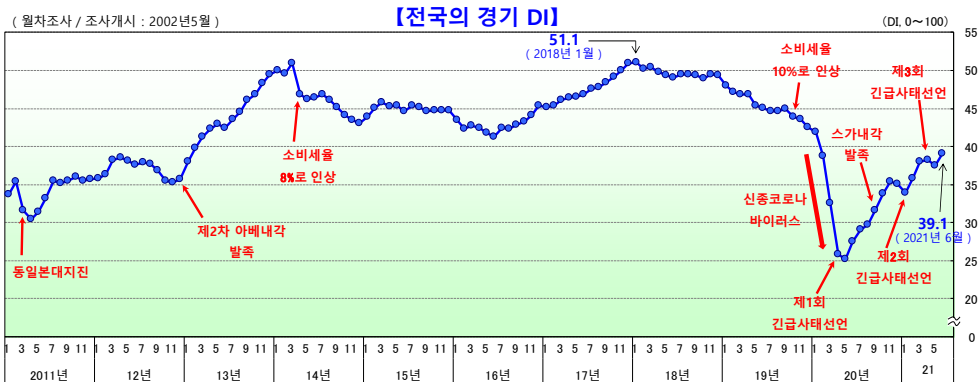
6월의 국내경기는 해외경제가 회복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9개 도도부현(都道府県)에서 긴급사태선언 해제 및 백신접종 보급 등으로 인구유동이 증가경향으로 추이하는 등 경제활동은 서서히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. 수출의 급증과 함께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상향한 한편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소매업 및 개인 서비스업 등 개인소비 관련도 개선도 나타났다. 기업의 디지털화 및 SDGs에 관련된 수요 증가 등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니즈의 창출도 나타났다. 한편 연료가격의 상승과 함께 코스트 부담 상승이나 목재 및 철강 등의 재료 부족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. 또한 기업의 체감경기에 있어 「K자형」 경제 경향이 계속되었다.

국내경기는 해외경제의 회복과 함께 개인소비관련도 상향하여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.

### < 향후의 전망 : 완만한 상향 경향 >

향후의 국내경기는 백신 보급과 함께 감염확대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도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중국 및 미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이나 5G의 본격적인 보급, 자택 내 소비 확대경향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. 게다가 재택근무 등 업무의 원격화로 인한 통신 인프라 정비 및 AI등의 보급에 따른 근로 방식 개혁에 대한 수요의 본격화가 기대된다. 한편 원재료 가격의 상승 외에 반도체 부족 및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의 장기화는 우려요소이다. 게다가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양극화 동향 및 도쿄올림픽의 행방 등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향후는 감염자수의 동향이 우려요소이나 완만히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며, 예측치±2표준편차로 산출